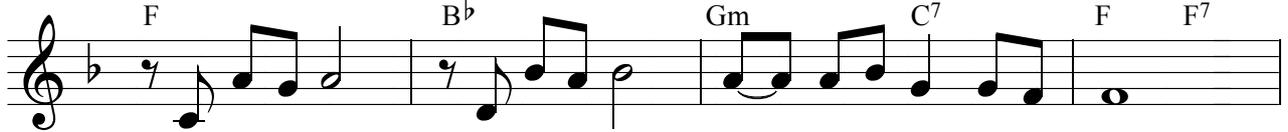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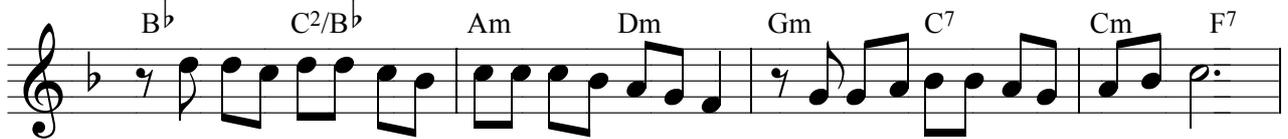
김석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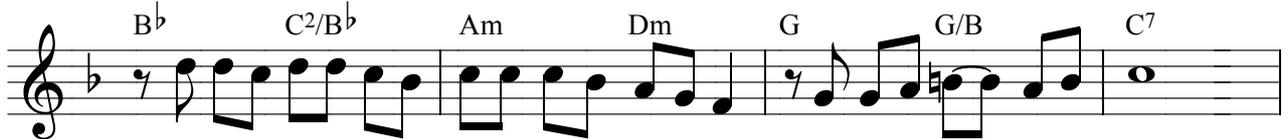
1. 한 순간도 견디기가 너무나 힘이 - 들어 요  
 2. 하루 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- 내 딸 아  
 3. 하루 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- 내 딸 아



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어찌 하지요 하나 님  
 지금까지 잘 견뎠다 잘 - 참았다 내 딸 아  
 지금까지 잘 견뎠다 잘 - 참았다 내 딸 아



믿음하나불 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 하면서  
 믿음하나불 잡고 여기까지 온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 
 믿음하나불 잡고 여기까지 온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



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너무 지쳐 요  
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너를 기억하고 - 있단 다  
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너를 기억하고 - 있단 다



왜 이렇게 참아 내기 힘이 드는 지 - 몰라 요  
 조금만 더 견디거라 참고 살아라 - 내 딸 아  
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겨낼 줄로 - 믿는 다



울어 봐도 안 되네요 도와 주세요 하나 님  
 조금만 더 기다려라 - 사랑한다 내 딸 아  
 사랑으로 품고 살라 - 내 아들아 내 딸 아